

- 2006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2006-2013 Kunstakademie Düsseldorf
- 2013 Kunstakademie Düsseldorf 디플롬 졸업
- 2013 Meisterschülerin(마이스터술러린) - 지도교수 Hubert Kiecol

레지던시 | 수상 | 장학금

- 2021 MKW 장학금
- 2020 MKW 장학금
- 2019 전시지원, 아트스페이스 오
- 2019 세계문화유산 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
- 2016 쾰른시 문화 장학금, 쾰른, 독일
- 2015 K.F. (Korea Foundation) 장학금
- 2014 Artist Residencies Enschede, 엔스헤데, 네덜란드
- 2013 German-French artist exchange PASSAGE (Ecole des Beaux-Arts), 툴루즈, 프랑스

개인전

- 2019 "playunderground", 아트스페이스 오, 서울, 한국
- 2019 "bad habit", Vitrine im Malkasten, 뒤셀도르프, 독일
- 2018 "OPPOSITE", 아웃사이트, 서울, 한국
- 2014 "untitled", Tankstation in Enschede, 엔스헤데, 네덜란드

2인전

- 2020 "Press Home to Unlock", OS, 서울, 한국

단체전

- 2021 "Hi, A new home", 수창정춘맨손, 대구, 한국
- 2019 "APMAP 2019 jeju - islander made", 오설록 티 뮤지엄, 제주도, 한국
- 2019 "부딪치는 시간들 Modern Times - 2019 세계문화유산 프로젝트", KUMA, 경기도, 한국
- 2018 "WASSER" Bethlehem Kirche, 메어부쉬, 독일
- 2018 "GUTE FRAGE", Studio 69, 뒤셀도르프, 독일
- 2017 "Linda Nadj & Guests", Die Wohnung, 뒤셀도르프, 독일
- 2016 "OPEN #1", Studio 69, 뒤셀도르프, 독일
- 2016 "ON OFF ON", Alte Feuerwache Köln, 쾰른, 독일
- 2016 "NUH'UN-MEGA-EGAL-TRANS-HYBRID", Container, 뒤셀도르프, 독일
- 2015 "Space in 36.5°C", Gallery Korea, 뉴욕, 미국
- 2015 "SPACE MONTAGE", Kunsthaus Rhenania, 쾰른, 독일
- 2014 "into my dying flat", project space in Düsseldorf, 뒤셀도르프, 독일
- 2014 "WINWIN", Jack in the Box e.V. Montagehalle in Köln, 쾰른, 독일

- 2006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학사
- 2013 독일 콘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 Akademiebrief 학위, 졸업
- 2012 마이스터술러 (Katharina Grosse 교수)

레지던시 | 수상 | 지원경력

- 2021 한국예술국제교류프로젝트 Mother of Pearl-자개장,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세인트 플로리안, AT
- 2020 Medien-Box, 2020 라팅겐 청년의 해 프로젝트, 라팅겐시립미술관, DE
- 2018 Förderpreis für Bildende Kunst der Landeshauptstadt Düsseldorf, 뒤셀도르프 올해의 작가상 수상

전시경력 및 프로젝트

- 2022 Horror Vacui, 호러 바쿠이 테아터 페스티벌, Burg Huelshoff-Center for Literature, 윈스터, DE
- 2021 DRITTENS formierend ./., oder : der Zukunft zugewandt - 탄츠 테아터 퍼포먼스, 뒤셀도르프, DE
Mother of Pearl - we meet on the floor, flora pondtemporary, 세인트 플로리안, AT
DIE GROSSE 2020, Kunstpalast Düsseldorf, 콘스트 팔라스트 뒤셀도르프, DE
Deep work | Writing and Coding, Burg Hülshoff-Center for Literature, 윈스터, DE
verschwindendes ./., irgendwo - 탄츠 테아터 퍼포먼스, Weltkunstzimmer, 뒤셀도르프, DE
- 2020 INSIDE, 미술인 교류를 위한 프로젝트 플랫폼 INTER, Projectroom Nails, 뒤셀도르프, DE
corpus aquae, Museum Ratingen 라팅겐 시립미술관, DE
- 2019 The Magic Lantern, Atelier Schloss Jägerhof e.V., 뒤셀도르프, DE
부딪치는 시간들 Modern Times - 2019 세계문화유산 프로젝트, KUMA 미술관, 경기도 의왕시, KOR
MMMmm, Künstlerhaus Sootbörn, 함부르크, DE
- 2018 Förderpreisausstellung 올해의 작가상 개인전, Kunstraum, 뒤셀도르프, DE
그렇게 그녀는 풍경이 되었다, 미스테이크 뮤지엄, 경기도 청평, KOR
Die Muschel kotzt Sahne, Kunstverein Atelierhaus im Anscharpark Kiel, 키일, DE
- 2017 In meiner Küche nicht! , Kunstraum Holzmann/Arthotel Braun, 키르히하임 볼라덴, DE
He cut a thin slice from a surface and found it tasted like elastic ice, Stadtgalerie Weidhofen/Ybbs, 임스강 바이트호벤 시립미술관, AT
- 2016 I was here - 작가의 시각으로 본 세계문화유산 프로젝트, Galerie der HBK Saar, 자브뤼켄, DE
PARASOL Observations, Popp's Packing, Hamtramck/Detroit, 디트로이트, US
Im Rahmen, Pumpenhaus Münster, 윈스터, DE
- 2015 PASSAGE-Edition 2015, Espace Croix-Baragnon in Toulouse, 툴루즈, FR
About Buildings And Food, Werkstatt Gladbacher Str., 뒤셀도르프, DE

10th Feelux Light Art Festival
선정작가 김애란&홍수현

존재하지 않는, 잡을 수는 없는

incorporeal, nonexistent

2021.11.19 /fri - 2022.01.28 /fri



대화 | 김애란, 홍수현

등받이 의자, 홀로그램 시트지, 모니터, 비디오 루프 재생 | 가변설치, 2021

제1 전시장의 입구에는 양쪽에서 서로 마주 보는 두 개의 일인용 좌석이 있다. 각각의 의자 위에 얹혀 있는 스크린에서는 두 작가가 이번 전시를 기획하며 새로 편집한 빛에 관한 영상이 반복 재생 된다. 이러한 구도의 영상이 포함된 설치는 관람자가 두 명의 작가의 서로 다른 관점으로 빛에 대해 나누는 담론을 상징적으로, 그러나 물리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존재하지 않는, 잡을 수 없는

incorporeal, nonexistent

이 전시의 기획에서 두 작가는 서로의 공통 관심사의 세 가지 요소인 커튼^{textile}, 빛, 공간을 두고 각자의 관점으로 작업을 풀어내기로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유형^{有形}의 재료인 커튼^{textile}, 섬유과 무형^{無形}의 재료인 빛조명, 영상매체에서 전자기기의 현상과 데이터를 포함 그리고 공통으로 이미 주어진 공간인 조명박물관의 제1 전시장과 제2 전시장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빛은 미술적 경계에서 어떠한 물질 ^{material}인가. 물리학의 맥락이 아닌 미술의 재료로써 작가는 빛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경험적 기호를 통해 빛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 조작과 설치를 통해 인공조명은 어느 정도로 인간의 의식에 관여할 수 있을까.

이 전시의 주요 목적은 주어진 소재이자 주제인 빛과 공간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하고자 하는 것인데, 빛이라는 재료의 독특한 물리적 특성에 대한 실험, 그리고 공간과 빛에 관한 사유를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접근하여 실험하는 방법이다.

관람안내

[전시]
2021.11.19(fri)~2022.01.28(fri)

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235-48 조명박물관
Tel: 070-7780-8914 www.lighting-museum.com

[관람시간]
10:00~17:00 (입장마감 16:00)
※관람시 사전 예약 필수 (네이버 예약)

후원 : KH Feelux 주최 : 조명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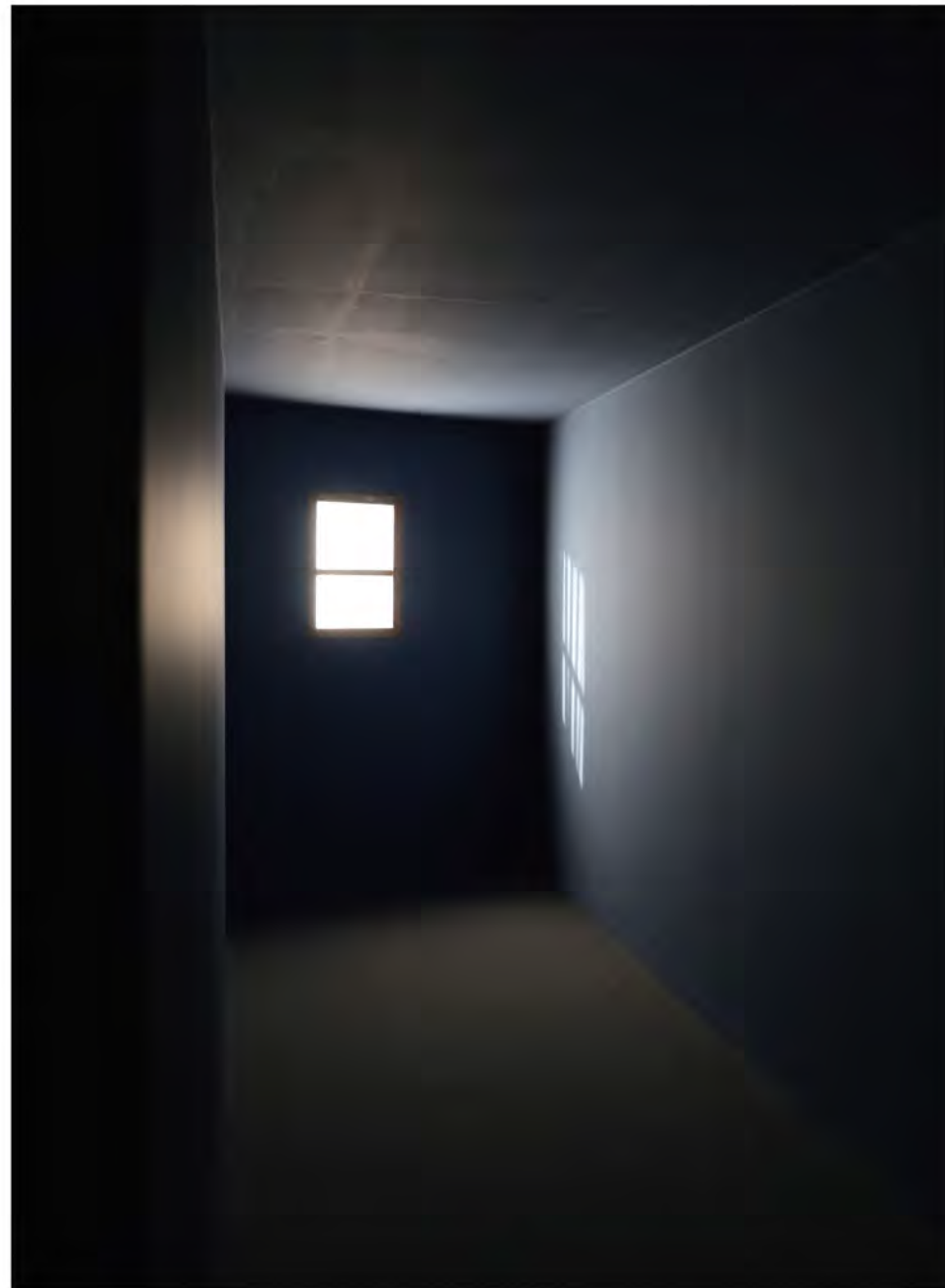


터무니없는

빛과 다양한 재료들을 결합한 설치로 빛(에 대한 경험)과 공간 인지에 관한 실험을 해 왔던 홍수현의 작업 "터무니없는"은 전시장 내부에 만들어진 공간, 그리고 빛과 사운드를 통해 공감각적 경험을 유도한다.

어두운 공간 입구에서 꺾어 들어가면 관람자는 8 미터의 긴 통로를 마주하게 된다. 통로 끝 사선으로 비스듬한 벽과 그곳에 설치된 창문으로 빛이 새어 들어온다. 통로를 따라 걸어 들어가 마주하는 창문은 바깥 풍경을 보게 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반대편의 커튼과 커튼 안쪽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뿌연 빛을 보여줄 뿐이다. 이러한 풍경은 관람자로 하여금 자신이 창문의 안과 밖 어느 곳에 위치한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갖게 한다. 그와 함께 어디에선가 내내 들려오는 사운드는 관람자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

작가는 창문이 있는 하나의 벽을 경계로 하여 마주한 공간의 안과 밖을 비틀어 놓음으로써 물리적 공간과 인지적 공간 그리고 경험적 공간을 중첩시켜 실재하면서도 부재하는 모순된 공간을 만들어낸다.



터무니없는 | 홍수현

MDF, 카펫, 커튼, 목재, 유리, 페인트, LED, 사운드 | 800×400×250cm, 2021



Corpus Aquae | 김애란

커튼 천, 2 채널 비디오 루프재생 | 가변설치, 2021



Corpus Aquae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고자 한다. 이 작업은 물과 빛을 영상매체의 실질적 매개체인 빛으로 투영하여 보여준다. 전시장의 중앙에는 천장에 줄 커튼을 달아 공간을 유선형으로 가로지르도록 한다. 줄 커튼의 표면에는 양 방향에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물의 영상을 투영한다. 공간의 대각선 끝에 설치된 2채널 프로젝션에는 각각 두 개의 시퀀스가 어긋난 차례로 재생된다. 영상 속에서 물은 반사되는 수면의 추상적인 흔들림과 흘러가는 윤곽으로써 표현된다. Corpus aquae(물의 몸)라는 제목의 이 작업은 물리적으로 움켜질 수 없으며 흘러내려가는 물의 전형적인 성질을 고찰한다. 전작 바람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물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작업에서 실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한 자연적 물성과 디지털 이미지 속성과의 유사성에 관한 것이다. 그들 모두 형체를 갖기 위해서는 물리적 그릇, 즉 매체를 필요로 한다. 전시실 공간 속에서 관객은 흐르는 물에 몸을 담고,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설치작업의 일부가 된다.